

# 현안과 과제

■ 경제행복지수 5년만에 최저치  
- '경제적 평등', 10년래 최저수준

# 목 차

## ■ 경제행복지수 5년만에 최저치

- '경제적 평등', 10년래 최저수준

Executive Summary .....	i
1. 경제행복지수 추이와 특징 .....	1
2. 경제현안 관련 국민인식 .....	7
3. 시사점 .....	9
<별첨1> 조사 개요 .....	11
<별첨2> '경제행복지수' 개요 .....	12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백   흥   기   본   부   장   (2072-6228, hback@hri.co.kr)

□ 정   책   조   사   실       :   김   동   열   이   사   대   우   (2072-6213, dykim@hri.co.kr)

## Executive Summary

### □ 경제행복지수 5년만에 최저치 : '경제적 평등', 10년래 최저수준

#### ■ 경제행복지수 추이와 특징

작년 12월 중순 실시된 제19회 '경제행복지수' 조사 결과 38.4점(전기대비 -0.5포인트)으로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안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행복지수를 구성하는 6개 세부 항목 가운데 '경제적 평등'(16.7점)과 '경제적 불안'(25.2점)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별로는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46.9점)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자영업자(28.1점)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갈수록 행복감이 가장 낮아졌고, 20대의 경우 가장 높았다. 고령층의 경우 은퇴 이후 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태에다 '노후준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대와 30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이나 자산규모는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대비 하락하여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행복지수가 높았지만, 대졸과 대학원졸의 경우 전기대비 하락했다.

#### ■ 경제현안 관련 국민인식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후준비 부족'(34.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년 전(28.8%)에 비해 응답률이 크게 높아졌다. 올해(2017년) 우리나라 경기가 작년에 비해 '더 안 좋아질 것'(64.4%)이라는 비관적 응답이 과반을 크게 웃돌았으며, 6개월 전(56.2%)과 1년 전(55.1%)에 비해서도 높아졌다. 최근으로 올수록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된다. 2017년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36.1%)이라는 응답과 '경기 활성화 대책'(36.4%)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많았다.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단기 대책(경기 활성화)과 중장기 대책(경제체질 개선)의 조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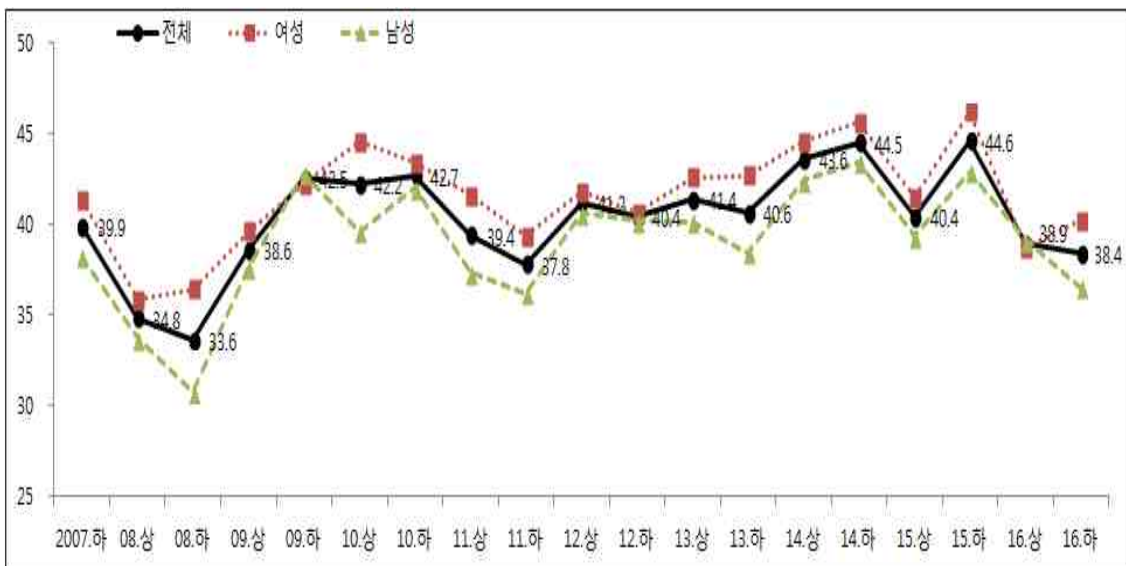
'노후준비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와 고령친화적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 아울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관련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년연장과 임금 피크제 등 고용의 안정성을 보완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 1. 경제행복지수 추이와 특징<sup>1)</sup>

○ (종합/추이) 2016년 12월 조사된 제19회 경제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38.4점으로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전기(2016년6월)대비 0.5점 하락

- 제19회 조사 결과 '경제행복지수'가 6개월 전에 비해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내외의 불안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이번 조사결과(38.4점)는 지난 2011년 12월에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으로 37.8점을 기록한 이래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임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그룹은 20대, 대학원졸, 미혼, 여성, 공무원이며, 가장 불행한 그룹은 60대 이상, 중졸, 이혼/사별, 남성, 자영업자임
  - 제19회 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그룹은 20대, 미혼, 대학원졸, 여성, 공무원,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계층이었음
  -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그룹은 60대 이상 고령층, 이혼/사별, 중졸, 남성, 자영업자,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은 계층이었음

< 경제행복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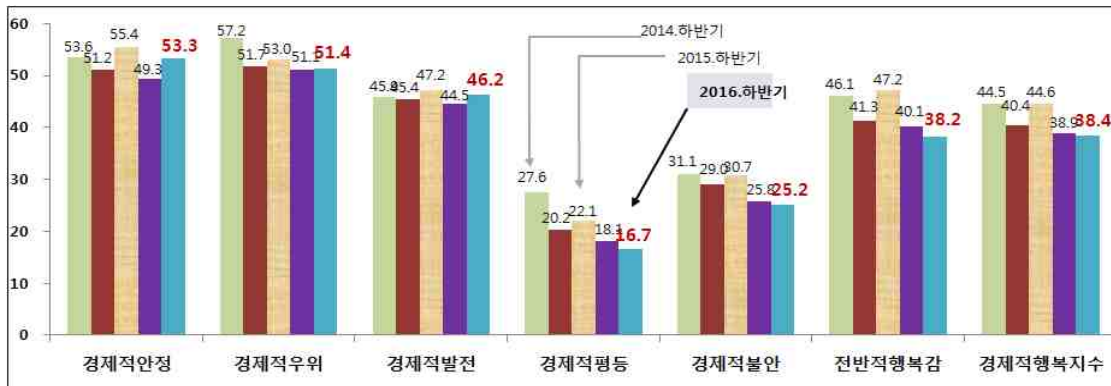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1) 이번 조사는 2016년12월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형태로 실시됨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

○(항목별) 경제행복지수의 6개 구성 항목 중 '경제적 평등'이 16.7점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저조했으며, 이어서 '경제적 불안'이 25.2점으로 두 번째로 낮은 점수. 두 항목이 전체 평균(38.4점)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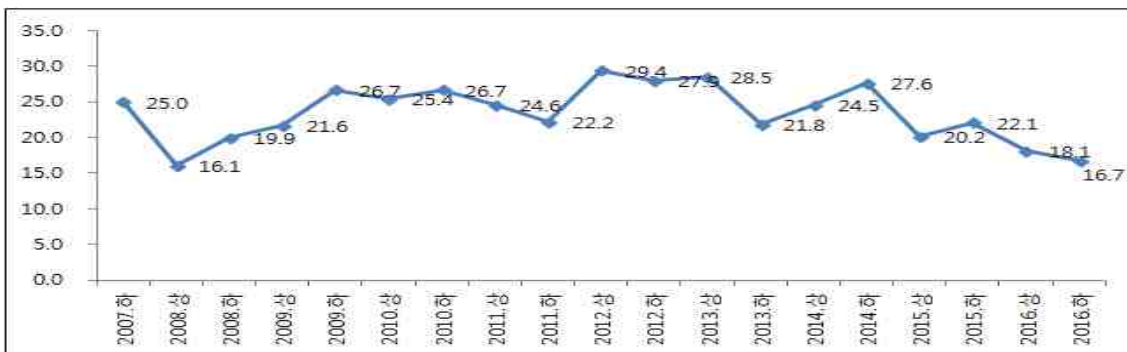
- 전반적 행복감(38.2점)과 '경제적 평등'(16.7점)이 전기대비 하락했으며, '경제적 안정'(53.3점)과 '경제적 우위'(51.4점)는 50점을 넘겼으나, '경제적 평등'(16.71점)과 '경제적 불안'(25.2점)은 절대적·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경제적 평등'(16.7점)을 구성하는 2가지 세부 항목 모두 낮지만, 둘 중에서 '향후의 불평등 전망'(19.0점)보다 '현재의 불평등 수준'(14.3점)이 더 비관적이라는 점에서 소득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함
- '경제적 불안'(25.2점)을 구성하는 2가지 세부 항목 중에서 '물가 불안'(27.1점)보다 '실업률 불안'(23.3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의 공포'가 더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경제행복지수의 구성요소별 점수 및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경제적 평등' 항목의 점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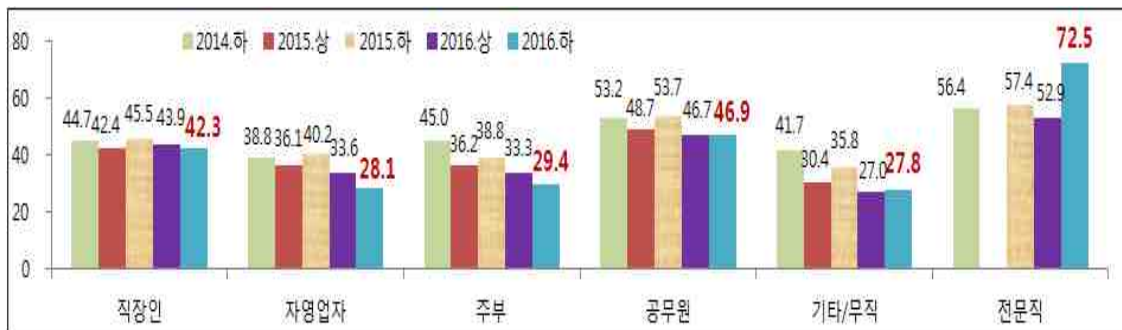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직업별) 직업별로는 ‘공무원’(46.9점)의 경제행복지수가 높은 편에 속했으며, ‘자영업자’(28.1점)와 ‘주부’(29.4점)는 낮은 편에 속함

-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며, ‘전문직<sup>2)</sup>과 더불어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자영업자’(28.1점)의 경제적 행복감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부’(29.4점) 역시 가계의 소득증가는 미미한 상태에서 가계부채 증가, 가처분소득 감소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됨
- ‘기타/무직’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고용상태 및 소득수준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행복감도 가장 떨어짐

< 직업별 경제행복지수 >



주 : ‘전문직’은 표본추출이 쉽지 않고 샘플이 작아서 ‘경제행복지수’의 변동폭이 크며, 2015년 상반기(제16회 조사)에는 샘플이 너무 작아 ‘기타’로 통합하여 처리한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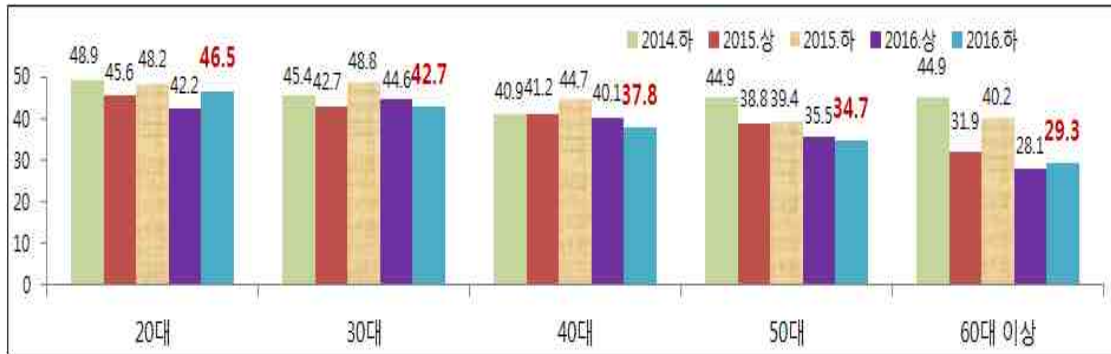
○(연령별)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9.3점)이 가장 낮았고, ‘20대’(46.5점)와 ‘30대’(42.7점) 등 젊은 층의 경제행복지수가 높은 편에 속했음

- ‘60대 이상’은 대부분 은퇴 이후 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태로서 ‘노후준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50대’ 역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떨어지는 세대에 속함
- 20대와 30대는 경제적인 부담이나 책임감이 무겁지 않은 시기인데 반해, 40대는 주택마련과 자녀교육의 부담, 50대는 노후준비와 자녀결혼의 부담, 60대 이상은 노후준비 부족과 소득 감소 등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2) ‘전문직’은 표본추출이 쉽지 않고 샘플(제19회 조사의 샘플은 3명에 불과)이 작아서 ‘경제행복지수’의 변동폭이 크며, 2015년 상반기(제16회)에는 샘플이 작아 ‘기타’로 통합하여 처리한바 있음.

· 1회~19회 평균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20대 46.0점 > 30대 43.8점 > 40대 39.7점 > 50대 36.8점 > 60대 이상 35.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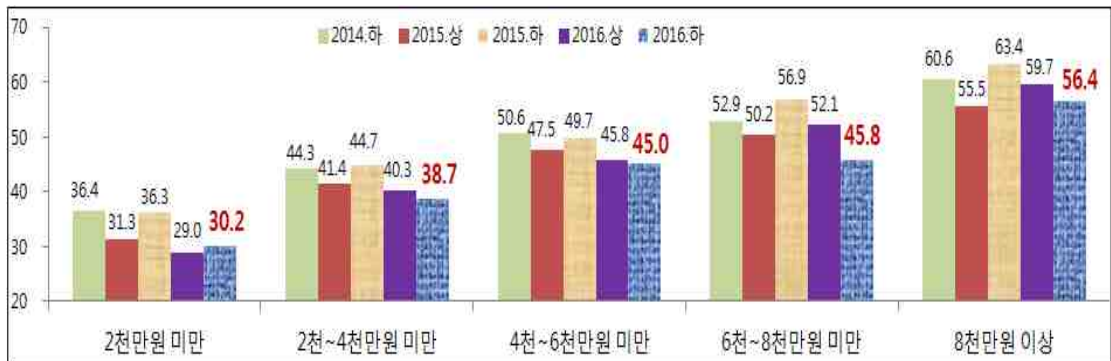
< 연령별 경제행복지수 >



○(소득별) 소득별로는 年소득 '2천만원 미만'(30.2점)의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낮아지고, 年소득 '8천만원 이상'(56.4점)의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아지고 있음

- 중상위계층인 '6천~8천만원 미만'(45.8점, 전기대비 -6.3점)인 '중상층'의 경제적 행복감 하락이 컸으며, 대부분의 소득 계층에서 행복감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해석됨
- 특히, '6천~8천만원 미만'(45.8점) 계층은 6개월전(52.1점)과 1년전(56.9점)에 비해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하락함
- '2천만원미만'을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기대비 행복지수가 하락함
- 1회~19회 평균 : 소득 '2천만원 미만' 31.0점 < '2천~4천만원 미만' 41.1점 < '4천~6천만원 미만' 47.8점 < '6천~8천만원 미만' 54.1점 < '8천만원 이상' 59.8점

< 소득별 경제행복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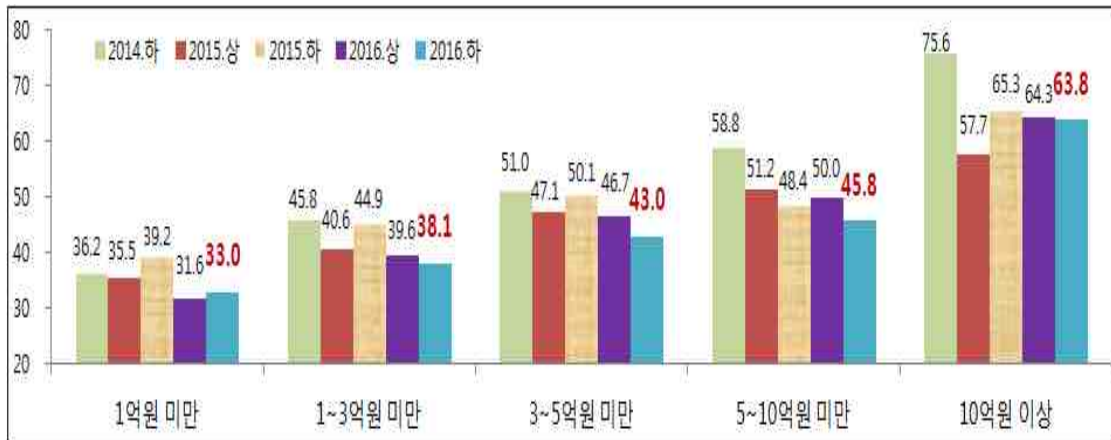


○(자산별) 자산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63.8점)으로 갈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지금까지의 추세와 비슷했지만, 대부분 전기대비 하락했으며 특히 '5~10억원 미만'(45.8점, 전기대비 -4.2점)<sup>3)</sup>의 하락폭이 가장 컸음

- 자산 '1억원 미만' 계층의 행복감(33.0점, 전기대비 +1.4점)이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자산계층의 경제행복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1회~19회 평균 : 자산 '1억원 미만' 33.3점 < '1억~3억원 미만' 41.2점 < '3억~5억원 미만' 47.7점 < '5억~10억원 미만' 52.3점 < '10억원 이상' 61.7점

< 자산별 경제행복지수 >



○(학력별) 학력별로는 '중졸'(23.7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고, '대학원졸'(46.2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지금까지의 추세와 비슷<sup>4)</sup>한 결과를 보여줌

- '중졸'(23.7점)과 '고졸'(33.1점)의 경제행복지수 값이 평균(38.4점)보다 낮았으며, '대졸'(41.0점)은 평균보다 약간 높았고, '대학원졸'(46.2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았음

· 중졸과 고졸의 행복감은 소폭이나마 상승한 반면, 대졸과 대학원졸은 소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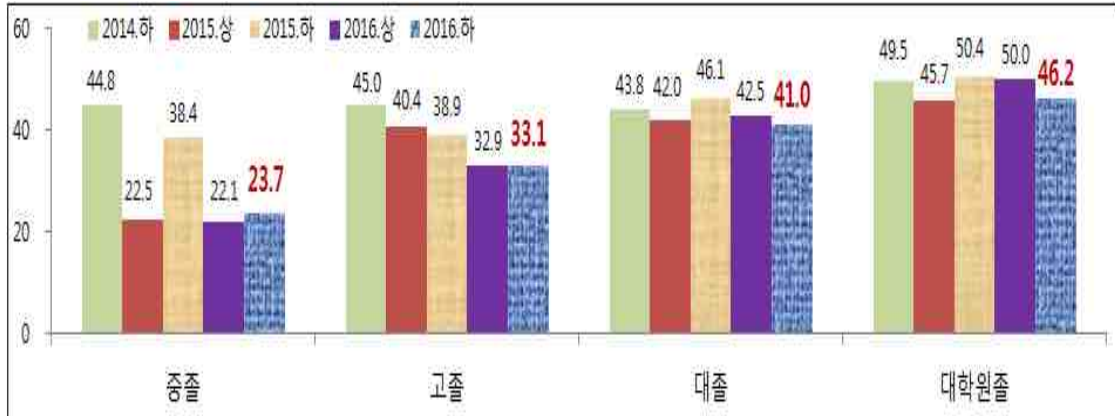
3) 우리나라에서 '5억~10억원 미만' 계층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경제적 애로사항이 작지 않음.

4) 중졸이나 고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령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층과 자영업자의 경제행복지수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함.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과 소득간의 상관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하락하여 학력간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최근 대기업들의 채용 규모 축소가 주로 대졸 이상의 젊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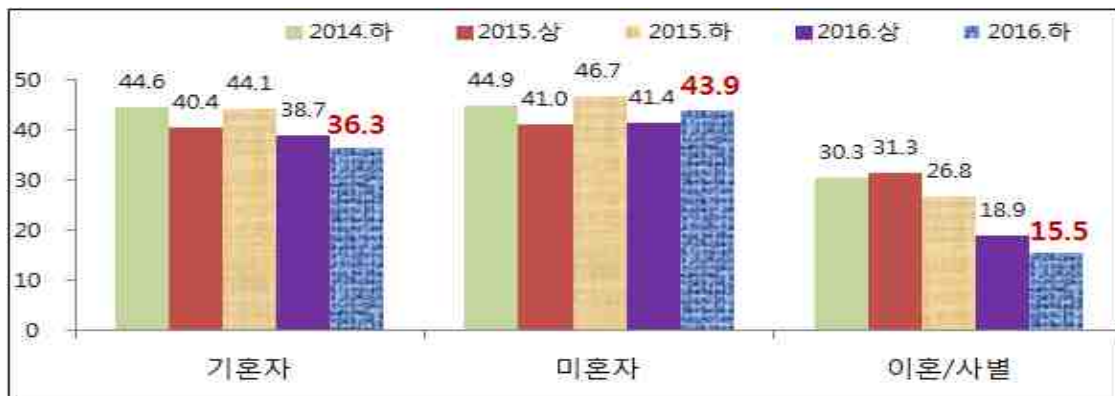
< 학력별 경제행복지수 >



○(결혼여부별) 과거 조사와 마찬가지로, '미혼'(43.9점)의 경제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혼'(36.3점), 그리고 '이혼/사별'(15.5점)이 가장 낮았음

- '미혼'은 경제적 부담과 책임감이 '기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이혼/사별'은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이혼/사별'의 경제적 행복감이 2015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 환경의 악화에 따른 여파가 가장 크게 미치고 있음을 반증

< 결혼여부별 경제행복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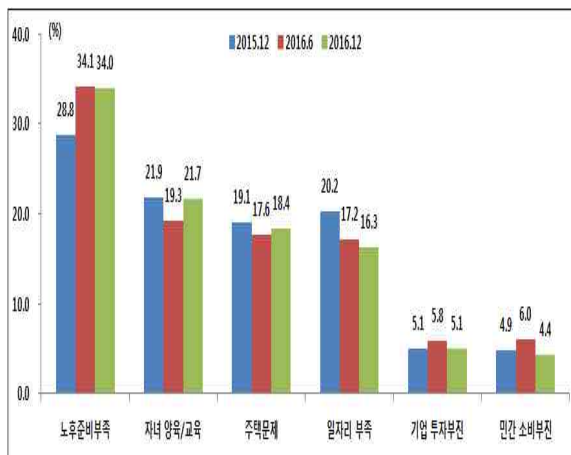


## 2. 경제현안 관련 국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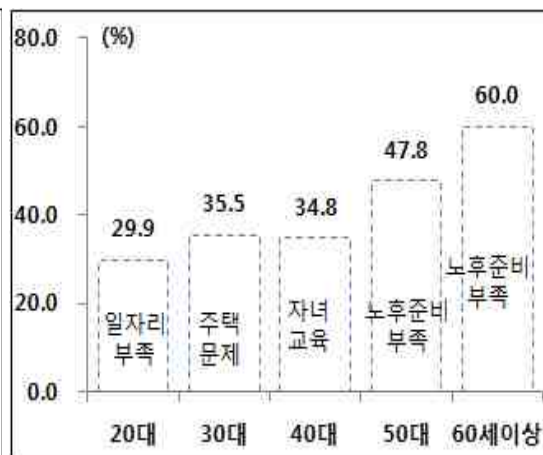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후준비 부족'(34.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전(34.1%)과 비슷했지만, 1년 전(28.8%)에 비하면 크게 높음

- 이어서, '자녀양육/교육'(21.7%)과 '주택문제'(18.4%), '일자리 부족'(16.3%)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 연령별로 나눠서 보면, '20대'는 '일자리 부족'(29.9%)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으며, '30대'는 '주택문제'(35.5%)
- '40대'는 '자녀 양육/교육'(34.8%), '50대'는 '노후준비 부족'(47.8%), '60세 이상'도 '노후준비 부족'(60.0%)이라고 응답
-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후준비 부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음.

<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 >



< 연령별 '경제적 행복 장애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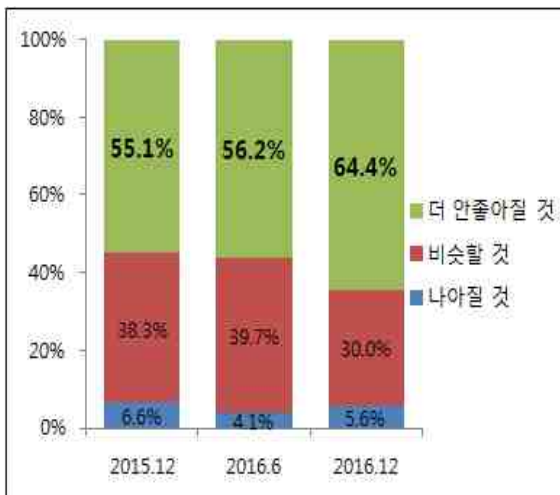
○(2017년 경기 전망) 2017년 우리나라 경기는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4.4%로서 과반을 크게 넘김

-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이 1년 전(55.1%)과 6개월 전(56.2%)에 비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움
- '더 안 좋아질 것'(64.4%)이라는 응답은 '자영업자'(70.4%), '60대 이상'(71.6%), '8천만원 이상'(72.4%) 고소득층에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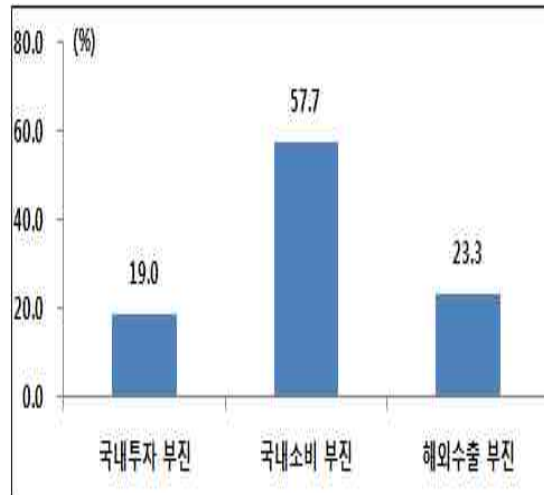
○(2017년 경제성장 장애요인) 2017년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을 가장 큰 장애요인은 ‘국내소비 부진’(57.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해외수출 부진’(23.3%)과 ‘국내투자 부진’(19.0%)의 순이었음

- 2017년 경제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국내소비 부진’(57.7%)이라고 꼽은 응답은 ‘공무원’(67.4%)과 ‘20대’(71.7%)에서 특히 더 높았음

< 2017년 경기 전망 및 과거 추이 >



< 2017년 경제성장의 장애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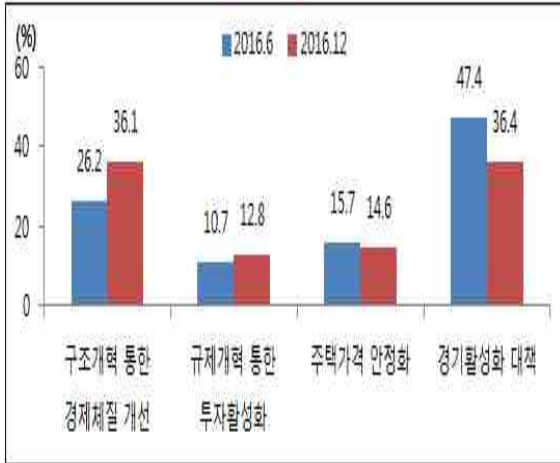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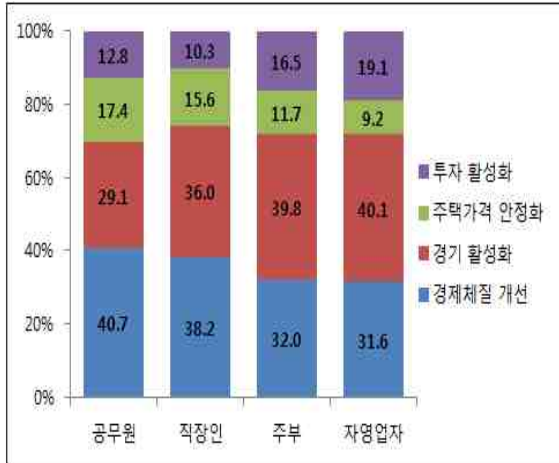
○(2017년 중점 추진과제) 2017년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물어본 결과, ‘경기활성화 대책’(36.4%)과 ‘경제체질 개선’(36.1%)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많았음

- 같은 질문에 대해 6개월 전에는 ‘경기활성화’(47.4%)가 ‘경제체질 개선’(26.2%)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과 대조적임
  -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므로 단기 대책(경기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중장기 대책(경제체질 개선)에도 유념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됨
  -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의 경우 ‘경제체질 개선’(40.7%)을 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자영업자는 ‘경기 활성화’(40.1%)를 원하는 응답이 많았고, 직장인은 ‘경제체질 개선’(38.2%)과 ‘경기활성화’(36.0%)의 응답률이 비슷하게 많았음

<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시기별) >



<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직업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3. 시사점

- '노후준비 부족'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파악됨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다수의 고령자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밀집형 공공임대아파트 등 노후지원 대책이 필요함

- 특히, '노후준비 부족'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응답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국민들이 노후준비 부족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면 그만큼 대책도 더 시급하다고 해석됨

-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하위 지수 값이 가장 저조하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최근 들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며, 전체적으로 '경제행복지수'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임

- 주거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교육비 대책이 시급함

-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노후준비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행되어야 함
  -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노후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과 노후 소득 확충을 위한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함
- '자영업자'와 '주부'의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부동산 경기의 조절이 전반적인 경기 하락, 자영업자 등의 소득 감소, 가계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악순환되지 않도록 '경제체질 강화'와 더불어 '경기조절 대책'이 세심하게 조화를 이뤄야 함
  - 작년 하반기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이 올해에는 거꾸로 '소비 절벽'을 초래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기별 경기조절 대책도 준비되어야 함

김동열 이 사 대 우 (2072-6213, dykim@hri.co.kr)

<별첨 1> 조사 개요

○ 개요

- 조사기간 : 2016년 12월 7일 ~ 12월 21일 (15일간)
- 조사대상 :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
- 조사방식 : 전화 설문조사 (지역별 최소할당과 인구비례에 의한 배분)
- 오차범위 : 95%신뢰수준에서 ±3.09%p

○ 응답자 특성

전체	성별		연령별					학력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이상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1007명	500	507	127	259	255	250	116	57	238	665	45
%	49.7	50.3	12.6	25.7	25.3	24.8	11.5	5.7	23.7	66.2	4.5

전체	직업별						소득수준별 (연간, 만원)				
	직장인	자영 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무직, 기타	2천 미만	2천~ 4천	4천~ 6천	6천~ 8천	8천 이상
1007명	597	153	105	3	86	61	277	469	166	66	29
%	59.4	15.2	10.4	0.3	8.6	6.1	27.5	46.6	16.5	6.6	2.9

## <별첨 2> ‘경제행복지수’의 개요

### ○ ‘경제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경제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 ‘경제행복지수’ 작성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사회·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

### ○ ‘경제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경제행복지수를 산출함

### <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 >

		이론 및 근거	내용
①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②	경제적 우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③	경제적 발전 지수	Da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④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 (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⑤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경제행복지수’의 계산 방식

- ‘경제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구성됨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 경제적 불안은 다른 4개 하위지수와 반대로 계산. 따라서 값이 높을수록 불안감은 낮아짐을 의미함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냄
- 경제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5} + \textcircled{6}}{2}$$

○ (‘경제행복 예측지수’)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의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의 차(가중치 0.5 적용)에 50을 더하여, 5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5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가 60% 이고 ‘아니오’가 40% 이면  $60 - 40 = 20$ 이 나오고 여기에 가중치0.5를 곱하고, 50을 더하면 ‘예측지수’는 6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 ‘경제행복지수’의 설문문항

구분		질문	답변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①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그렇다 (2)반반이다 (3)아니다
	② 경제적 순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③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④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⑥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경제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1)예 (2)아니오